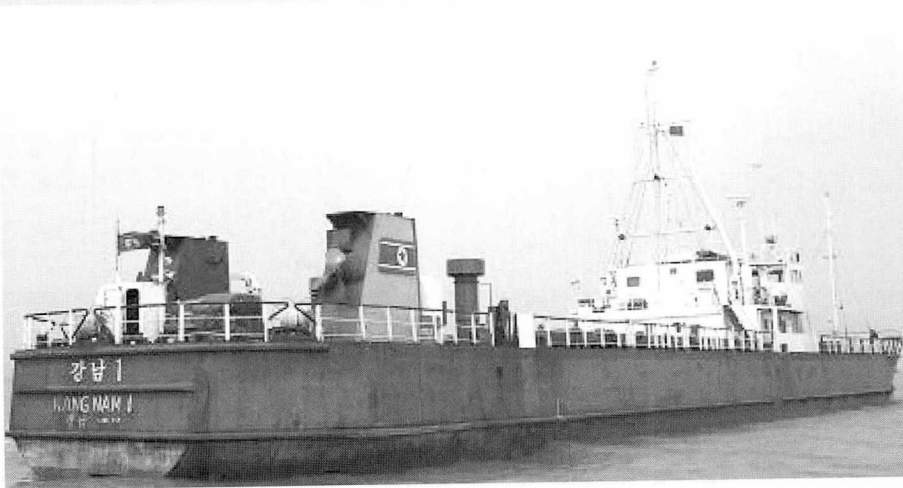


# 세계 각국 항만국통제 북한선박 중점적으로 점검

## 지난해 750척 점검선박 중 659척 결함선박 지적



171척으로 평균보다 4.8배 정도 높았다.

가장 높은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인도양으로 모두 41척이 PSC 점검을 받아 18척이 항만에서 발이 묶였다.

북한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에서 블랙 리스트(black list) 국가에 올라 중점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MI가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북한 화물선 강남 1호의 PSC 점검을 계기로 주요 지역의 항만국 통제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5년에 외국 항만에 드나든 북한 선박 가운데 PSC 점검을 받은 선박은 모두 750척(1회를 1척으로 계산)으로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된 선박은 659척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북한 선박의 경우 결함으로 인해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른바 '블랙 리스트' 군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인도양 등 항만국 통제사무국이 설치돼 있는 4개 지역에서 지난해 북한 선박이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1,000톤(GT) 이상의 북한 등록선박은 모두 284척으로 일반 화물선이 222척으로 가장 많고, 컨테이너 선박은 3척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등록선박 가운데 실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은 84척으로 드러났다.

북한 선박의 경우 평균 선령이 24년으로 비교적 낡은 선박 비중이 높고, 항만국통제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화물선이 상대적으로 많아 출항정지처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PSC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항목은 선박증서와 구조 및 안전관련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북한 선박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중점적인 점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 선박이 항만국 통제와 관련해 요주의 선박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북한의 핵 시험에 따라 유엔에서 제재결의가 채택됐기 때문이다.

한편, UN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세계 각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인도양의 프랑스령 마요트 당국은 11월16일 북한 선박 1척에 대한 '완벽하고 철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불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장밥티스트 마테이 외교부 대변인은 "세관 당국이 마요트에 기항한 북한 선박의 화물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검색이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對北) 무기 금수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마요트는 동아프리카 모잠비크와 인도양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있는 프랑스령의 작은 섬이다.

그러나 마테이 대변인은 선박의 이름이 무엇인지, 화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해상 검색을 담당하는 프랑스 세관 관계자는 "선원 45명이 탄 선박의 이물부터 고물까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검색했으나 아직까지 무기나 마약, 다른 밀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P통신이 전했다.

이 선박은 155m 길이의 '압록강 호'로 싱가포르를 떠나 코모로제도로 향하던 중 마요트에 기항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미국 등 정보 당국으로부터 무기선적 의혹을 받아 온 '봉화산호'는 11월초 미얀마 탈라와 항에 정박했다가 미얀마 당국의 검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22일에는 북한선박 '강남1호'가 홍콩 인근 란타우섬 인근 해상에서 홍콩 해사처의 검문을 받은 뒤 안전장비 미비 등의 문제로 홍콩항에 억류된 바 있다.

### 홍콩우리투자은행 한달만에 선박금융주선 성사

국내 은행 최초의 해외 IB(투자은행)로 설립된 홍콩 우리투자은행이 영업 시작 한 달만에 선박금융주선 업무를 따냈다.

은행업계에 따르면 홍콩우리투자은행은 지난 11월9일 싱가포르 해운사의 선박 금융자금 7700만달러를 주선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홍콩 진출 이후 첫 계약을 따내 지난 주 조인식을 가졌다"며, 싱가포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우리은행의 업무능력을 평가받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계약으로 모두 90만달러(8억 4,000여만원) 이상의 수수료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별도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몇 건의 추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우리투자은행은 우리은행이 자본금 5,000만달러를 출자해 만든 법인으로 11월말 공식 창립 리셉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홍콩 진출 이후 첫 영업 성과를 거둬 따라 이 지역에 비슷한 시기에 진출한 신한은행 홍콩 IB법인인 신한아시아(Shinhan Asia Ltd.)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